

ISO/TC207/SC7(온실가스 관리) WGs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ISO TC207/SC7(온실가스 관리)은 최근 국제외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TC207 작업반(WG)에서 SC7을 구성한 후 첫 번째로 열린 회의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교토의정서 발효(2005.2) 및 제 1차 의무감축기간 개시(2008)가 임박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과 검증, 검증평가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필요하다. 금번 회의내용은 “온실가스에 대한 타당성 및 검증 평가자의 요구사항”(WG 1 구성),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및 탄소추적(Carbon footprint, Carbon profile)”(WG 2 구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상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검증 평가자도 같이 참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자 했다.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함에 따라 각국의 대표단과 접촉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필요. 특히, 온실가스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작업반이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원활한 역할을 위하여 작업반의 컨비너를 수임

또한 국내의 온실가스 분야의 검증평가 및 분석기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규격 제·개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온실가스 검증 평가자, 온실가스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급함으로써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기여했다.

2. 출장기간 : 2008. 1. 26~2. 2(5박 8일)

3. 출 장 지 : 멕시코시티



한 상 미

바이오환경표준과 공업연구관

02-509-7266

hsm@mkc.go.kr

4.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공업연구관	한상미	신산업기술표준부 (7118-256-220-02)
한국인정원	부장 대리	이보삼 박종일	자체경비
한국품질재단	차장	정유심	*
주)에코시안	대표	은종환	*

II. TC207/SC7(온실가스 관리) 회의 참가

1. ISO/TC207/SC7(온실가스 관리) 개요

(1) 구성

- Secretariat : CSA (캐나다)
- Secretary : Mr. Kevin Boehmer(캐나다)
- Chairman : Dr. Chan Kook Weng(말레이시아)

(2) 작업반 현황

WGs	활 동 분 야	Convenor	간사국
WG1	Greenhouse Gases-Competency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ors and verifiers	Mr. Todd	CANADA
WG2	GHG quantification or "footprinting" of products, events, or services	Dr. Klaus RADUNSKY(Austria) Dr. Dae Gyun OH (Korea)	미정

2. ISO/TC207/SC7 회의 참석결과

TC207/SC7(온실가스 관리)은 TC207 작업반(WG)에서 SC7을 구성한 후 첫 번째로 열린 회의

의장은 지금까지 SC7의 간사가 Mr. Kevin Boehmer(캐나다) 였으나 Ms. Marsha Cheddi로 바뀔 것이라고 발표했다.

ISO14064/5에 대한 개정은 2009년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ISO는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RI(World Resources

Institute)와 MOU 체결('07.12.3일 발표), ISO 14064와 WRI, WBCSD GHG프로토콜 기준을 함께 증진시키는데 합의했다.

SC7의 NWI로 "Greenhouse Gases-Competency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ors and verifiers" 와 "GHG quantification or footprinting of products, events, services" 를 채택했다.

WRI/WBCSD 잠재적인 NWI에 대한 발표

GHG 프로토콜 선도를 위한 "Supply Chain 과 Life Cycle GHG Accounting" 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다.

- WRI, WBCSD, USEPA 기후변화 리더들과 업체들이 참여
- 가이드라인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중요하지만 long-term 이슈
- SC3, 5와의 협력, WRI/WBCSD와의 협력경도와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 일본에서는 설문조사 시행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와 이에 대한 응답자 리스트 공개를 요구 하면서 투명성에 의문제기
 - CEN은 제품의 온실가스 정량 측정의 ISO 작업을 완성
 - 영국의 경우 이미 이러한 아이템을 다루는 유사한 규격 또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
 - labelling이 SC7의 범위인가에 대하여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TC207에서 SC7의 명확한 위치와 명백한 범위가 없이 다른 SC와 joint WG을 형성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고 NWI로 결정시 시장의 요구와 기존개발 규격의 이행 경험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 온실가스 측정범위 requirement 가 되어야하는지 가이드라인 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WG 또는 Ad hoc 그룹을 구성해서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4개월 후 콜롬비아 회의에서 제시기로 함
- 필요성에 대하여는 Ad hoc group을 구성하여 정리기로 함



(Ad hoc group)

- 간사는 Nigel Carter(영국), volunteer는 오스트리아, 북미, 영국 등으로 함

- 작업범위를 어떻게 할지?

제품과 서비스에서 GHG의 측정, 모임이나 이벤트들에서 GHG의 측정 또는 GHG 리벨링 영역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needs와 목적을 확인반영

- 핵심 활동

- 기존의 규격, 가이드라인, 가장 좋은 예를 파악
- ISO 인편에서 관련된 아니시티브 파악
- 적용범위, 기술, 이해당사들에 대한 잠재적인 난제들을 파악
- 규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잠재적인 기준 파악

- 결과물

- 핵심내용구성
- NWP 발전으로 친성인지 반대인지
- NWP 범위 제한 조직리더십정리 등 제시
- Ad hoc 그룹은 2008. 4. 30일까지 위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여 secretary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secretary는 콜롬비아 보고타 회의(6.22~28)에 앞서 SC7 회원국에게 미리 전달하기로 함

ISO 14066은 2007년 하반기에 NWI로 결정되어 금번 회의에서는 WG 1을 구성하여 WD(안)을 개발 하기로 했다.

컨버너 : 토드(미국)

14066의 표준 최종 제정일은 2011년 2월로 목표

관련규격 중 최근 동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ISO 17021-2 경영시스템심사 규격과 EU-EIS II 를 위한 EA-6/03을 참조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ISO 17021에 대하여 다시 검토 후 쟁점사항으로는 GHG 와 같은 특수한 영역에 대한 검증자의 지식을 검증하는 법, 관심분야의 개인적 논쟁을 피하고 관리하는 법 등이 어떤 것인지와 개인적인 교육, 경력 등을 규격에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CASCO 보고 >>

ISO 17021-2는 개념상 경영시스템 감사를 위한 범위에 제한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고 17021-1은 각 조직이 관련된 기술분야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 개인의 적격성들을 증명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표준이란 관련된 개인의 충분한 자격 특별히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상세해야 하고 검증 평가자에 표준은 강화되고 있고 19011과 관련한 모든 요구사항들은 17021-2로 바뀔것이라고 보고, 인정된 부적격 검증평가자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만일 개인사적의 평가가 충분히 엄격하다면에 대한 CASCO 의 의견에 대해, 멕시코에서는 개관 대상국의 경우 지식, 경험 등의 엄격한 요구사항 특히 현장에서 검증 경험 등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제시, scheme과 분리하여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일본), 14066은 최소화된 요구사항이어야함(한국), 금융 관련도 포함되어야 함 (영국)

ISO 14066 초안작성 논의

한국은 캐나다에서 작성해온 초안 중 7절에 대하여 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규격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ISO 14065와 일치해야 하고 팀의 적격성은 ISO 14066의 적격성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이 규격의 부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주장 (ISO/WD 17021-2의 경우 규격의 범위가 행정요원, 심의위원 등에 대한 적격성 범위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지적), 7절의 적격성 범위는 데이터와 정보검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미국),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원 적격성 관리 표준에서 적격성 표준으로 변경 해야함을 제시(한국), 2차 수정안에 대하여 7절의 적격성 분야는 충분히 적절하지 않으므로 ISO 14065 심사팀 적격성 분야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한국), 위의 의견에 대하여 캐나다도 동의 8절의 personal attributes 는 적격성 분야로 정의될 수 없음을 제안(한국), 미국측에서 제안한

Annex(IAF 섹터 코드) 대신 교도의정서 Annex B의 sector/source 코드 제안, personal attribute 포함조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타 회의에서 논의될 WD1의 작성을 위해 Editing group 구성

금번 회의에서 정한 적격성 분야에 대한 지식, 스킬, 등의 세부적인 요건을 각국에서 작성하여 Secretary가 종합할 예정이며 참가국은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로 4월 30일까지 컨비너에 제출키로 했다.

WG 1의 프로그램

- 5월 1일까지 WG 1 멤버들에게 완성된 안을 배포
- 5월 30일까지 코멘트를 완성하여 return
- 종합한 코멘트들을 6월 7일까지 배포
- 6월 21일~28일 보고타 회의에서 약 3일간 코멘트들에 대한 논의 예정

새로운 작업아이템에 대한 방향 설정,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접근

1. Ad hoc 그룹을 구성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과 평가를 증명해야함
2. 작업만을 구성하여 특이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함

3. 1과 2를 같이 병행

- 각 나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나 WG2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1과 2를 병행하기로했다.
- 의장 및 다른 나라에서 WG2 Co-컨비너에 한국이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했다.
- 새로운 규격개발을 위한 노력을 WG 2에서 하기로 결정
- 작업반 형성 목적은 제품 또는 조직들과 연결된 GHG의 장량, 성적표시제, supply chain 등에 GHG 관리를 위한 SC7 NWI 들 위한 요구에 대하여 목적

과 평가를 증명하기 위함

-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한팀은 WG2의 범위에서 잠재적인 NWI의 목적과 요구를 확인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권고 들을 준비하고 다른 한팀은 잠재적인 안들에 대하여 SC7의 국가대표기관들로 하여금 NWIP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방식
- Co-convenor 는 오스트리아 Klaus Radunsky 와 한국 오대관소장으로 정함

III. 종합의견

1. 출장소감

현재 온실가스 관리는 모든 나라의 관심사항으로 제품에 대한 규격 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정책분야와 연계하여 각 분야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표준을 제안 한다면 국제표준화 선진이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관련 분야의 국내전문가 네트워크구성 및 육성을 통한 작업반 참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ISO는 WTCSO, WRI 등과 MOU를 체결하여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같이 참여하므로써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지침들이 표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2. 향후 계획

TC207/SC7 작업반의 컨비너를 수임함으로써 표준제정 작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다.

온실가스 분야의 경우 표준기술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관련업체, 단체, 학계와 논의하고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

국내 온실가스 관련 분야의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부서와 협의